

지자체 기업 유치 지방세 감면 딜레마

재정난속 2014년 4224억 감면·비과세

전남도·22개 시군

4년만에 276억원 늘어나

정부 보조 필요 목소리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문화예술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지방세 징수 규모의 4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주민·토착기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감소하고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 재무 상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는 18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 지정 구역 전남 171개소, 곡성·고흥·함평·완도·신안 등 낙후도가 심한 지역 내 창업 기업 및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면이 예상되는 금액은 62억2900만원이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취득세 면제, 해양박람회특구 내 창업 기업 및 사업시행자 취득세 50% 감면 등도 추가돼 수십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걷을 수 없게 된다.

전남도가 지난 2014년 지방세인 도세 가운데 감면한 액수는 2205억2664만원, 비과세한 액수는 698억4397만원으로, 모두 2903억7062만원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세 징수액 8849억3997만원의 24.7%다. 일부는 직원 임금도 주

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같은해 1321억원의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전남도 전체적으로 4224억원의 세금이 감면 또는 비과세된 셈이다.

이처럼 순수 자체수입이 줄면서 지방채 발행 증가나 자체 사업 자체·연기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전남도 등 지자체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비과세에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공익성, 조세 형평성,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특례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간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개발 촉진 등에 있어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와 같은 수준의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다보니 전남도와 각 시·군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액은 지난 2010년 3948억원에서 4년만에 276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지방세 감면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감면 비율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외부 기업 투자 유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지자체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비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해 감면·비과세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타 시·도와 유사한 범위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 등에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감면 비율이 높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함박눈에 갇힌 도심의 오후

함박눈이 쏟아진 18일 오후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광주시 서구 광천동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종인 ‘전두환 국보위 전력’ 논란

한상진·새누리 잇단 비난

야당 정통성 훼손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 참여’ 등의 과거 전력(前歴)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같은해 5월31일 국경 전란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김 위원장에 대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터민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국부(國父)’ 발언을 김 위원장이 비판한 것을 해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정권에 참여한 기록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 ‘국부’ 발언을 비판했다”며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한 분으로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단절과 반복의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 계승과 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이날 오전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동화은행 사건으로 구속됐었고, 그 전 전두환 정권 때는 국보위에 참여한 전력도 있다”면서 “자기 도덕성에 대해서 겸연한 고백을 하고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강대 교수였던 1980년 5월 국보위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두 차례(12·13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권 때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민자당 비례대표로 14대 국회의원도 역임했다. 그러나 경제수석 시절에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다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의 과거 전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은 피해자인 광주 민심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김 위원장이 민정당, 민자당, 민주당 등 여야를 넘나들며 4차례나 비례대표를 지냈고, 동화은행 관련 비리로 구속,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정통성 훼손은 물론 터민주의 혁신과도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김 위원장의 국보위 참여가 사실이라면, 당시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발언 등을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두환 군사정권의 ‘모태’가 된 국보위는 전국 비상계엄령 아래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설치·운영됐다. 각 부처의 공직자 숙청, 정치활동 정화 조치, 언론 통폐합, 삼정교육대 등 초헌법적인 조치들이 초헌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이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김형호기자 cki@

농협중앙회장 선거

선거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시선관위가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뉴질랜드 트래킹-밀포드 트랙 ▶18면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에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상연비 : 16.1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악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